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의 작품 속에서 나타난 시적 허용과 경계 — 『月に吠える』를 중심으로—

채 지 혜*

(e-mail : chaejh@knu.ac.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4. 에로스와 욕망의 경계 |
| 2. body: 조작에서 표현으로 | 5. 나가며 |
| 3. 몸의 유희, 언어 유희 | |

키워드 : 萩原朔太郎(Sakutarou Hagiwara), 모랄(Moral), 身体(Body), 에로스(Eros), 欲望(Desire), 境界(Boundary)

1. 들어가며

우리가 문학에서의 신체표현을 접할 때,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용인하여 불편함을 허용할 것이고 어디까지 예술의 범위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경계와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 불편한 진실의 탄생 원인은 우리가 몸담은 사회에서 만들어진 규칙과 규범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범들을 근현대에 이르러 모럴이라고 지칭되고 있는데, 현실적 모럴의 잣대로 문학적 모럴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럴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나아가 사회적 규범이 아닌, 개인의 양심과 자발적 의지에 기초한다는 정의¹⁾ 속에서 본고의 주제로 설정하여 작품을 분석해보겠다. 문학 작품 속에서 모럴

* 경북대학교, 강사, 일본근대문학

1)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40990
(검색일: 2019.12.13.)

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는 다양한 방면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본 근대 시인인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 1886-1942, 이하 사쿠타로)작품에는 시적 주체와 시적 대상의 모습들이 상당히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겠다.

그의 작품 『달을 보고 짓다(月に吠える)』²⁾에 나타나 있는 극단적으로 나누어진 양상 중, 시적 주체의 모습은 대부분 신체가 일그러지거나 훼손되고 혹은 병든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시적 대상의 모습은 매혹적인 이미지이고 특히, 아름다운 여성의 신체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극명하게 갈리는 주체와 대상의 신체표현을 중심으로 사쿠타로 작품의 경계에 대하여 논해보겠다.

사쿠타로의 작품에서 나타난 병성과 성의 표상에 대해서 쓰보이 히데토(坪井秀人)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시집 『달을 보고 짓다』(자유사 출판부, 감정시사, 1917)의 한 근간을 이루게 되는 <정죄시편>을 준비하던 하기와라 사쿠타로에게 <질환>이란 경험적인 실체가 아니라 명확하게 개념전락으로 불러온 것이었다. 그것은 물상을 메타포 하여 새로운 유기체를 형성하는 연금술, 그 현자의 돌이었다. <질환>은 <영성>이 <발광>한 것으로 비인격 동식물과의 《교감회식》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초목간음>인 성적인 상징주의에 바탕을 둔 이 시기 고유의 모티프가 인도된다. 병성은 일상세계의 배열을 벗어나고, 성은 객관적 대상과 주체와의 경계를 교란한다.³⁾

쓰보이 히데토는 ‘병성은 일상세계의 배열을 벗어나고, 성은 객관적 대상과 주체와의 경계를 교란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정상적이지 않은 신체의 모습들이 일상과 규칙 등에서 해방되어 이질적이고 낯선 모습으로 자유로움이라는 경험을 표상하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 이상으로 정신의 거처이기도 하다. 이 몸에 대하여 남기혁은 ‘육체는 내면 의식의 공간과 시대성 즉 객관적 현실이 접점을 이루는 곳’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의 거처이자 정신의 외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으로서의 육체는

2) 『달을 보고 짓다(月に吠える)』는 1917년에 간행된 하기와라 사쿠타로의 첫 번째 시집이다.

3) 坪井秀人(2012)『性が語る—二〇世紀日本文学の性と身体』名古屋大学出版会、p.163.

감각과 행동 그리고 정신이 매개되는 가운데 개인적 모럴과 공동체적 인륜성 사이에 윤리적 쟁투가 벌어지는 장(場)⁴⁾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기능 이상으로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도 윤리와 도덕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생명력을 자본주의라는 문명 아래에 공공연하게 상품화 시켜버리고 여전히 뒷공론의 대상⁵⁾이 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낯선 감각들로 이루어진 시세계를 어찌서 자본주의의 논리와 사회적 규범이라는 타당성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독자들은 사쿠타로의 문학을 비일상적이고 실험적이라고 일컫지만, 그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 관점의 차이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해보겠다.

2. body: 조작에서 표현으로

구축되어온 미의 개념과 신체의 기능은 문학 속에서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사쿠타로는 작품 속에서 증명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 신체의 아름다운 비율과 균형을 파괴하는 작업을 통하여 추함이라는 불완전함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근대 구어 자유시라는 본질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현실과 작품 속 세계와의 괴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외적인 미를 배제하고 보기 거북한 불완전의 신선함을 독자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사쿠타로가 시적 주체의 변용되고 파괴된 신체를 여과 없이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어 자유시의 무한 허용, 기묘한 신체를 형성해내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쿠타로의 문학적 모럴 실현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내부에 있는 사람이 기형으로 보이는 이유(内部に居る人が畸形な病人に見える理由)

4) 남기혁(2012) 「오장환 시의 육체와 퇴폐, 그리고 모럴의 문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4집(16권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p.157.

5) 이경수(2004) 『불온한 상상의 축제』 소명출판, p.163.

나는 창가의 레이스 그림자에 서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얼굴을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나는 손에 망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먼 곳을 보고 있습니다,
 니켈로 만들어진 개라든가 양이라든가,
 머리가 벗겨진 아이들이 걷고 있는 숲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눈을 어느 정도 흐릿하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양배추 요리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 위 이 유리창은 매우 조잡합니다,
 그것이 나의 얼굴을 이렇게 심하게 일그러지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매우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거기서 나를 지켜보고 있나.
 어째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웃고 있나.
 오오, 물론, 나의 허리부터 아래라면,
 그 주변이 확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조금 바보스러운 의문이겠지만,
 물론, 결국, 이 창백한 창 의 벽에 기대서,
 집 내부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⁶⁾

일부러 커튼 레이스와 일그러진 유리 창문에 얼굴을 제대로 보이지 않게 하

6) 萩原朔太郎(1986) 『萩原朔太郎全集』第一卷、筑摩書房、p.49.

わたしは窓かけのれいすのかけに立つて居ります、/それがわたしの顔をうすぼんやりと見せる理由です。/わたしは手に遠めがねをもつて居ります、/それでわたしは、ずっと遠いところを見て居ります、/につける製の犬だの羊だの、/あたまのほげた子供たちの歩いてる林をみて居ります、/それらがわたしの瞳を、いっくらかかすんでみせる理由です。/わたしがはげさきやべつ^のの皿を喰べすぎました、/そのうへこの窓硝子は非常に粗製です、/それがわたしの顔をこんなに甚だしく歪んで見せる理由です。/じつさいのところを言へば、/わたしは健康すぎるぐらゐなものです、/それなのに、なんだつて君は、そこで私をみつめてゐる。/なんだつてそんなに薄気味わるく笑つてゐる。/おお、もちろん、わたしの腰から下ならば、/そのへんがはつきりしないといふのならば、/いっくらか馬鹿げた疑問であるが、/もちろん、つまり、この青白い窓の壁にそうて、/家の内部に立つてゐるわけです。/[필자역]

는 효과를 연출하고, 시적 주체의 신체 중에서도 허리부터 아래라고 하는 하반신이 확실하지 않다고 신체를 애매하게 하는 기법을 연출하고 있다. 실제로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쿠타로이지만, 작품 속의 시적 주체의 신체는 일그러진 얼굴과 흐릿한 몸에서의 일상의 탈출과 변용을 꾀하고 있다. 이는 신체에 부여된 균형과 제약을 저항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흐릿한 색채로 인한 선명함과 경계가 없는 신체에 명료함마저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조각난 몸, 이질적인 요소들과 융합된 몸, 다른 형태로 변용된 몸을 표현하면서 파괴, 변용 재구축이라는 예술표현의 단계를 보여준다.⁷⁾

위의 인용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상 속에서 떨어진 초현실주의 세계관에서는 몸의 파괴를 통하여 예술을 표상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사쿠타로의 작품에서 또한, 몸의 분리와 절단 또는 흐리게 하여 시적 주체의 모습을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고 독자들에게는 초현실적인 낯선 감정을 경험시키게 하고 있다. 자신의 시세계를 발현하기 위해 자신과 가장 가깝고 구체적인 표현체인 신체를 이질적인 모습으로 변용시켜 작품 속에서 예술로 승화시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사쿠타로에서 자아를 찾는다고 하면, 그쪽에서 떠오르는 것은 허리부터 하반신이 결손된 신체로서만 자기상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중략] 본질적으로 사쿠타로의 자아는 질환을 지닌 불완전한 신체에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생명을 조형하고 있다. 이 생에 대한 희구를 근저에 두고 사쿠타로는 재생으로서의 자아를 『달을 보고 짓다』에서 읊었다.⁸⁾

훗타가 서술하고 있듯이, 사쿠타로는 허리 아래를 없애, 신체를 훼손하는 기법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완성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학대로 인하여 폭력감과 동시에 해방감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지점이다.

7) 조윤경(2008) 『초현실주의와 몸의 상상력』 (주)문학과 지성사, p.24.

8) 堀田敏幸(1996) 「自我の分裂 : 朔太郎とボードレール」 『愛知学院大学教養部紀要 : 愛知学院大学論叢』 44(1)、愛知学院大学教養教育研究会、p.57.

알코올 중독자의 죽음(酒精中毒者の死)

하늘을 향한 채 죽어 있는 알코올 중독자의,
 새하얀 배 언저리에서,
 정체 모를 것이 흐르고 있다,
 투명한 푸른 혈장과,
 일그러진 다각형의 심장과,
 썩은 창자와,
 류마티스로 짓무른 손목과,
 호물호물한 내장과,
 그 땅바닥은 온통,
 땅바닥은 반짝거리고 있다,
 풀은 날카롭게 솟아있다,
 모든 것이 라듐같이 빛나고 있다.
 이런 외로운 풍경 속에 또렷이 떠올라,
 희음스름한 살인자의 얼굴이,
 풀처럼 팔랑팔랑 웃고 있다.⁹⁾

마치 보색대비가 확연한 네거티브 효과로 연출된 사진을 통하여 사건 현장을 보고 있는 착각마저 들게 하는 장면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이라는 상징으로 철저한 색채의 대비로 나타내고 있고, 개복(開腹)된 알코올 중독자의 시신 상체에서 다각형의 심장이 존재하고 있다. 사쿠타로는 알코올 중독자의 시신을 왜 이런 모습으로 설정하였는가?

썩은 내장, 병들어 짓무른 신체. 이것들은 알코올 중독자의 신체(시체)에 그것을 통어하는 <주>가 부재이고, 한편 또 부난과 유동이라고 하는, 생도 죽음도 아닌 경계영역이 이 시의 텍스트의 영역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시

9) 前掲書、萩原朔太郎(1986) p.44.

あふむきに死んでゐる酒精中毒者の、/まつしろい腹のへんから、/えたいのわからぬものが流れてゐる、/透明な青い血漿と、/ゆがんだ多角形の心臓と、/腐つたはらわたと、/らうまちすの爛れた手くびと、/ぐにやくにやした臓物と、/そこらいちめん、/地べたはびかびかが光つてゐる、/草はすどとどかがつてゐる、/すべてがらぢぢむのやうに光つてゐる。/こんなさびしい風景の中にうきあがつて、/白つぼけた殺人者の顔が、/草のやうにびらびら笑つてゐる。//

의 표상하는 무서움과는 전적으로 이 제어 불능인 경계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¹⁰⁾

푸른 혈액과 개복된 신체라는 오브제가 안과 밖의 경계가 흐려지는 장치로 사용됨으로써 일상적인 현실이 파괴되고 비일상적 현실로 변용되고, 이러한 풍경 묘사로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가 무너짐과 동시에 사쿠타로만의 모호한 새로운 시세계가 구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죽음(死)

응시하는 땅바닥에서,
기묘하고 이상한 손이 나온다,
발이 나온다,
목이 나뉜다,
여러분,
이 녀석은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위인가.
응시하는 땅바닥에서,
얼빠진 얼굴을 하고,
손이 나온다,
발이 나온다,
목이 나뉜다.¹¹⁾

지면에서 토막이 난 인간의 신체가 나오는 이미지가 연출되고 있다. 혹은 매장된 신체가 지면을 뚫고 손발과 머리를 내밀고 있는 풍경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지면 밖에서 관찰하는 경우에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분절된 신체 일부들로 연상되고 있다. 사쿠타로의 고의적인 신체 훼손으로 독자들에게 불안

10) 前掲書、坪井秀人(2012) p.176.

11) 前掲書、萩原朔太郎(1986) p.41.

みつめる土地の底から、/奇妙きてれつの手がでる、/足がでる、/くびがでしやばる、/諸君、/こいつはいつた
い、/なんといふ鷺鳥だい。/みつめる土地の底から、/馬鹿づらをして、/手がでる、/足がでる、/くびがでしや
ばる。//

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가 분할된 신체에 천착하는 이유는 페티시즘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오히려 독자들에게 그로데스크한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불편한 유머러스라는 참신한 감각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묘하고 이상한 파편화된 신체들이지만, 시적 주체를 「こいつ」라고 하대하는 지칭을 사용하거나, 분절된 신체들이 땅에서 나올 때 바보 같은 얼굴이라는 디테일로 그 신체들은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버린다. 또한, 지면을 뚫고 나오는 신체들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자유롭게 해방하고 있다.

손과 발과 목은 각각 다른 생명체 같은 움직임의 보여주고 있으며, 작품의 초반과 후반의 대칭적 반복으로 신체 부위의 강조를 나타내고 있다. 절단된 신체 부위들의 시어로 텍스트를 전반과 후반에 반복하여 대칭 구조를 만들어내어, 뒤틀린 완전함을 꺾는 기법변형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과 형식의 범위를 파괴하여 아이러니하면서 유머러스한 기법으로 사쿠타로의 독특한 시세계를 완성하고 있다.

3. 몸의 유희, 언어 유희

신체를 파괴, 훼손 그리고 변용에 이르러 사쿠타로는 신체로 음식화(化)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 특히 먹는다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특히 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부분은 먹는 주체와 먹히는 대상의 관계이다. 이는 아름다운 손을 먹어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시적 주체와 아름다운 손의 주인인 시적 대상으로 연결이 된다.

신체를 음식에 비유하는 것은 진부할 수도 있는 소재이고 때로는 그로데스크한 표현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우선 성욕의 퇴폐성을 식욕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은 일상을 비일상으로 뒤엎는 장치이기도 하고 오히려 비일상적인 모습을 일상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 손은 과자다(その手は菓子である)

그 실로 귀여운 포동포동한 생김새는 어떠한가

그 둥글둥글하고 과자같이 부푼 생김새는 어떠한가
손가락은 정말 가늘고 교태롭고
마치 작고 푸른 물고기 같아서
부드럽게 살랑살랑 움직이는 모습은 참을 수 없어
아아 그 손 위에 입맞춤하고 싶다
모조리 입에 대고 먹어버리고 싶다
이 얼마나 짙은 손가락 끝은 곡선인가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서 피어나는 이 불가사의한 꽃 모양은 어떠한가
그 냄새는 사향 같고 슬쩍 땀이 뻘 복숭아꽃처럼 보인다.
이토록 아름답게 잘 손질된 여성의 손가락
잘빠지고 새하얗고 가늘고 긴 손가락
피아노 건반을 치는 손가락
바늘로 비단을 기우며 일하는 손가락
사랑을 갈구하는 어깨에 달라붙으며
그런데도 유난히 느끼기 쉬운 피부 위에
가볍게 손톱 끝을 대고
가볍게 손톱으로 긁으며
가볍게 꼭 누르는 듯한 손가락의 움직임
그 부르르 몸이 떨리는 사랑의 기쁨 아주 교활하게 마음을 흔드는 손가락
새침하고 심술궂은 검지
비겁하고 쾌활한 새끼손가락의 장난
엄지손가락의 비대한 아름다움과 그 포악한 야만성
아아 그 매끄럽게 손질된 손가락 하나를 받들어서
쪽하고 입에 물고 빨고 있고 싶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더라도 계속 빨고 있고 싶다
그 손등은 와플처럼 폭신하고
그 손가락은 얼음설탕 같이 차가운 식욕
아아 이 식욕
아이처럼 탐욕스러운 수치를 모르는 식욕.¹²⁾

12) 前掲書、萩原朔太郎(1986)、 p.276.

そのじつにかはゆらしいむつくりとした工合はどうだ/そのまるまるとして菓子のやうにふくらんだ工合はどうだ/指なんかはまことにはつそりとしてしながよく/まるでちひさな青い魚類のやうで/やさしくそよそよとうごいてゐる様子はたまらない/ああその手の上に接吻がしたい/そつくりと口にあてて喰べてしまひたい/なんといふすつくりとした指先のまるみだらう/指と

탐욕과 음탕함 속에서 신체를 음식으로 형상화하여 자신의 수치스러운 성욕을 감추고 있으며, 이는 감춰왔던 성욕의 해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쿠타로는 작품에서 맛보는 행위를 거침없는 관능성으로 승화시켰고, 여성의 손가락을 더욱 노골적인 에로스의 대상으로 묘사하였다. 신체를 음식물로 비유하는 작업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섹슈얼리티를 찬양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손을 가진 시적 대상에 대한 욕망을 전혀 자제하지 않고, 시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시적 주체는 주체 못 하는 황홀경에 빠지는 기쁨과 동시에 죄악감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럴의 경계 속에서 욕망과 금기로 혼란스러운 시적 주체의 심정을 ‘차가운 식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차가운 식욕’이라는 고의적으로 모순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냉정하게 객관화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손가락을 먹고 싶다는 식욕에 대한 언급은 마지막 행에 주목해보면 「아 이처럼 탐욕스러운 수치를 모르는 식욕。」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탐욕스럽고 수치를 모르는 식욕을 아이라는 순수한 대상에 비유하는 것으로 사쿠타로가 지향하는 초월적 이미지를 표출하고, 동시에 이와 같은 식욕을 가진 자신의 죄악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¹³⁾

모럴이라는 경계 안에서 사쿠타로는 시적 주체를 통하여 자신의 모순과 혼란스러움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성적 욕망의 죄악감과 수치를 모르는 식탐을 동일시하여 이 욕망의 순수성에 접근하고 하였다. 하지만 사쿠타로조차도 문학적 모럴 속에서 일상의 죄악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적 주체는 사회적 규범과 욕망의 자유 사이에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이 갈등은 문학적 모럴과 양

指との谷間に咲このふしぎなる花の風情はどうだ/その匂ひは麝香のやうで薄く汗ばんだ桃の花のやうにみえる。/
かくばかりも麗はしくみがきあげた女性の指/すつぱりとしたまつ白のほそなかい指/びあのの鍵盤をたたく指/針をもて
絹をぬふ仕事の指/愛をもとめる肩によりそひながら/わけても感じやすい皮膚のうへに/かるく爪先をふれ/かるく爪でひ
つかき/かるくしつかりと押へつけるやうにする指のはたらき/そのぶるぶるとみぶるひをする愛のよろこびはげしく狡猾にく
すぐる指/おすまで意地悪のひとさし指/卑怯で快活なこゆびのいたづら/親指の肥え太つたうつくしさとその暴虐な
る野蛮性/ああそのすべすべとみがきあげたいつぼんの指をおしただき/すつぱりと口にふくんでしやぶつてぬたい
いつまでたつてもしやぶつてぬたい/その手の甲はわつぶるのふくらみで/その手の指は氷砂糖のつめたい食慾/ああ
この食慾/子供のやうに意地のきたない無恥の食慾。//[필자역]

13) 채지혜(2018)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의 자아와 타자: 시적 주체, 시적 대상, 시적 공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6.

십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4. 에로스와 욕망의 경계

앞서 사쿠타로는 자신의 욕망을 감추거나 드러내거나 하는 프로세스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에서 원초적 에로티시즘의 한계를 느끼고 그것을 돌파하는 형태를 다음 작품들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관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논해보고자 한다. 이에 관련된 연구 중 서재곤은 사쿠타로의 ‘관능’ 수용문제에 관하여 언급하였는데, 사쿠타로의 작품 중 ‘예기’나 ‘창기’에 대하여 노래한 시편도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유녀라는 여성상과 사쿠타로의 뮤즈로 알려진 ‘에레나’라는 성녀적 여성상의 중층구조로 비교하고 있었다.¹⁴⁾ 그러나 시적 대상을 성녀와 창녀의 이중구조에서 벗어나 ‘대상의 신체’라는 대상으로 범주를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애련(愛憐)

귀여울 것 같은 단단한 치아로,
풀의 초록빛을 음미하는 여자여,
여자여,
이 연푸른 풀의 잉크로,
구석구석까지 너의 얼굴을 색칠하고,
너의 정욕을 고조시켜서,
우거진 수풀에서 남몰래 놀자,
보아라,
여기에는 잔대가 목을 흔들고,
저기에는 용담이 손이 나긋나긋 움직이고 있다,
아아 나는 너의 유방을 꼭 끌어안는다,
너는 너대로 힘껏 내 몸을 꼭 누른다,
그리고 이 인적 없는 들판에서,

14) 서재곤(1999) 『萩原朔太郎の作品における女性像の研究』、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p.37.

우리는 뱀처럼 놀아보자,
 아 나는 나대로 칭칭 감아서 너를 귀여워해 주며,
 너의 아름다운 피부 위에 푸른 풀잎의 즙을 치덕치덕 바른다.¹⁵⁾

시적 대상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자연을 통해서 완성하고 있다. 형상과 색채에 주목하여 사쿠타로의 시세계에서 여성의 신체를 또렷이 드러내고 있다. 옷이 특정한 사회에의 소속을 말해준다면, 옷의 부재는 사회에 대한 거부 또는 그 사회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한다.¹⁶⁾ 이와 같은 논리로 옷의 유무는 문명과 자연의 대비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자연 속에서의 순수한 쾌락의 극치를 즐기고 있는 시적 주체와 대상은 섹슈얼리티¹⁷⁾의 총체를 표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사쿠타로는 시적 대상에게 ‘우리는 뱀처럼 놀아보자’라는 청유형으로 표현한 것은 남성 중심적 문화 속에서의 억압적인 성행위에서 벗어나 성 역할의 해방과 서열의 자유를 도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쿠타로는 이 작품에서 풀, 풀즙, 수풀, 잔대, 용담, 들판 등의 풀과 관련된 시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물적인 성욕을 ‘식물성’의 소재들로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생명력 이상으로 궁극의 에로스를 갈구하는 시적 주체의 성적 욕망을 표상하고 있다.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戀を戀する人)

나는 입술에 연지를 바르고,
 새로 난 자작나무 줄기에 입 맞추었다,

15) 前掲書、萩原朔太郎(1986)、p.64.

きつと可愛いかたい齒で、/草のみどりをかみしめる女よ、/女よ、/このうす青い草のいんきで、/まんべんなくお前の顔をいろどつて、/おまへの情慾をたかふらしめ、/しげる草むらでこつそりあそばう、/みたまへ、/ここにはつりがね草がくびをふり、/あそこではりんどうの手かしなすと動いてゐる、/ああわたしはしつかりとお前の乳房を抱きしめる、/お前はお前で力いづばいに私のからだを押へつける。/さしてこの人気のない野原の中で、/わたしたちは蛇のやうなあそびをしよう、/ああ私は私できりきりとお前を可愛がつてやり、/おまへの美しい皮膚の上に青い草の葉の汁をぬりつけてやる。//[필자역]

16) 전계서, 조윤경(2008), p.64.

17) 섹슈얼리티는 성, 성적 총체, 성의식. 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여러 가지의 뜻으로 사용된다. 성은 생물학적 성별과 함께 남성과 여성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성욕, 성애의 대상, 성적인 매력, 성교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성을 섹슈얼리티로 부른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p.231.

가령 내가 미남이라 하더라도,
 나의 가슴에는 고무공과 같은 유방이 없다,
 내 피부에서는 고운 가루분 냄새가 나지 않는다,
 나는 시들어 빠진 불운한 남자다,
 아아, 참으로 가여운 사내다,
 오늘의 향기로운 초여름의 들뜬에서,
 반짝이는 나무들이 우거진 숲속에서,
 손에는 하늘빛 장갑을 꼭 껴보았다,
 허리에는 코르셋 같은 것을 입어보았다,
 목덜미에는 하얀 분 같은 것을 발랐다,
 이렇게 살며시 교태를 부리면서,
 나는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살짝 고개를 갸웃하면서,
 새로 난 자작나무 줄기에 입맞춤했다,
 입술에 장밋빛 연지를 바르고,
 새하얗고 키가 큰 수목에 매달렸다.¹⁸⁾

시적 주체의 내면의 불완전함을 여장을 통하여 자신의 완전함을 바라며 욕망과 자기연민에 빠져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작품 중, ‘고무공 같은 유방이 없다’는 대목은 정신의학 용어인 ‘젖가슴 선망’과 일맥상통한다. ‘젖가슴 선망’이라는 것은 남아와 성인 남자에게 페니스 선망에 대한 대응물일 수 있는데, 이것은 “작은 페니스 콤플렉스” 또는 거세 불안의 파생물일 수 있다.¹⁹⁾ 남성의 불완전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고, ‘시들어 빠진 불운한 남자’로 연결되어 권위를 상실한 남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하늘색 장갑을 끼거나 여성의 코르셋을 입는 행위 등은 앞서 「애련」

18) 萩原朔太郎(1986) 『萩原朔太郎全集』第一卷、筑摩書房、p.65.

わたしはくちびるにべにをぬつて、/あたらしい白樺の幹に接吻した、/よしんば私が美男であらうとも、/わたしの胸にはごまりのやうな乳房がない、/わたしの皮膚からはきめのこまかい粉おしろいのにほひがしない、/わたしはしなびきつた薄命男だ、/ああ、なんといふいぢらしい男だ、/けふのかぐはしい初夏の野原で、/きらきらする木立の中で、/手には空色の手ぶくろをすつぽりとはめてみた、/腰にはこるせつとのやうなものをはめてみた、/襟には襟おしろいのやうなものをぬりつけた、/かゝしてひつそりとしなをつくりながら、/わたしは娘たちのするやうに、/こころもちくびをかきつけて、/あたらしい白樺の幹に接吻した、/くちびるにばらいろのべにをぬつて、/まつしろの高い樹木にすがりついた。
 //【필자역】

19) 미국정신분석학회 저 · 이재훈 역(2002) 『정신분석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p.475.

에서 거론하였던 시적 주체의 남성성에 대한 ‘성 역할의 해방’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는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돼 있음을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 시적 주체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성의 모호함을 강조하는 상태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Cross Dressing이라고 일컬어지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변태적 성 욕구라기보다, 시적 주체의 사회적 규범과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사쿠타로의 구어 자유시의 특질 중 하나인 아름다움에 대한 주관성을 나타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A는 아름답다고 느끼는 부분을 B는 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에 만족하는 주관주의²⁰⁾와 상통하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전형적인 미의식을 거부하고 불완전성도 미의식의 일종으로 인정하는 시도가 보인다.

마찬가지로 시적 주체의 자작나무와의 수음 또한 구어 자유시의 주관성이 두드러지는 근대적 시 소재라고 할 수 있으며, 사쿠타로는 이 행위를 ‘초목간음(草木姦淫)’이라고 하였다. 이 초목간음에 대하여 나카무라 미노루(中村稔)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초목간음」은 하기와라 사쿠타로의 몽상이다. 그는 초목의 정령과 간음하는 꿈을 꾸고 몽정했을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무에 시들 듯이 안겨서 성욕을 달성하는 것은 그가 중학교 시절부터 치열한 정열이었음을 감안하면, 초목간음도 그대로 그의 체험, 환각적 체험이라고 생각한다.²¹⁾

나카무라의 주장대로 초목간음은 사쿠타로의 환각적 망상에 불과하지만, 현실적인 쾌락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사쿠타로는 자연과 인간과의 경계를 허물어트리고 혼합되는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 시적 주체가 나무줄기에 입을 맞추고 매달리는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몸이 자연의 연장선임을 가시화하고 이러한 풍경은 나아가 단순히 에로티시즘에만 국한되어 해석되는 경계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어서 시적 주체의 존재를 자연 속에서 재발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0) 움베르토 에코저 · 이현경역(2005) 『미의 역사』, 열린책들, p.247.

21) 中村稔(2016) 『萩原朔太郎論』、青土社、p.104.

5. 나가며

사쿠타로의 작품 속에서 불편한 진실과 외면받는 것들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쿠타로 시작(詩作)의 개념과 일반적인 모형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그의 시세계를 검열하려 하는 것이 사실이다. 부조리한 신체 왜곡들이 작품에서 가시화되어 있고 이 속에서 섹슈얼리티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쿠타로는 원초적 에로티시즘의 한계를 느끼고 여기에서 돌파하는 프로세서로 신체의 파괴와 훼손 그리고 먹는 행위 등을 통하여 독자들을 불편하고 낯설게 만들었다. 게다가 일상적인 신체의 미에서 벗어나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신체의 표현들로 더는 신체의 고유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앞서 지적하였던 현실적 모델의 잣대로 문학적 모델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를 충족시켰다고 생각한다.

정리해보면 시적 주체의 신체표현과 시적 대상의 신체표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적 주체의 신체에서는 주로 신체의 파괴와 훼손 그리고 변용의 양상이 나타났다. 사쿠타로는 혐오감을 주는 절단된 신체들을 작품 속에서 표현하면서 온전한 신체의 모습으로 영향을 줄 수 없었던 불쾌한 감각을 독자들에게 새로이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아름다움과 추함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즐거움과 참신하고 낯선 감각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시적 대상의 신체에서는 손을 여러 음식에 비유하여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하여 에로티시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식욕과 성욕의 치환 작업으로 에로티시즘이 불러일으키는 즐거움과 쾌감을 극대화하였다. 또 사쿠타로는 남성에 대한 ‘성 역할의 해방’을 시도하여 장벽을 무너뜨리고 성의 모호함을 강조하였다. 사쿠타로는 작품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하여 파괴된 신체를 이용하여 순수성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고정된 개념과 경계를 무너뜨려 독자들에게 금기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적 주체와 시적 대상의 신체표현은 극명한 상이점이 두드러졌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몸에 대한 미의식과 에로스와는 상반된 개념으로 작품 속에서 표상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남기혁(2012) 「오장환 시의 육체와 퇴폐, 그리고 모럴의 문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4집(16권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p.157.
- 미국정신분석학회 저 · 이재훈 역(2002) 『정신분석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p.475.
- 움베르토 에코저·이현경역(2005) 『미의 역사』, 열린책들, p.247.
- 이경수(2004) 『불온한 상상의 축제』, 소명출판, p.163.
- 조운경(2008) 『초현실주의와 몸의 상상력』, (주)문학과 지성사, pp.24-64.
- 채지혜(2018)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의 자아와 타자 : 시적 주체, 시적 대상, 시적 공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6.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p.231.
- 徐載坤(1999) 『萩原朔太郎の作品における女性像の研究』、東京大学博士学位論文、p.37.
- 坪井秀人(2012) 『性が語る—二〇世紀日本文学の性と身体』、名古屋大学出版会、pp.163-176.
- 中村稔(2016) 『萩原朔太郎論』、青土社、p.104.
- 萩原朔太郎(1986) 『萩原朔太郎全集』第一卷、筑摩書房、pp.5-523.
- 堀田敏幸(1996) 「自我の分裂 : 朔太郎とボードレール」 『愛知学院大学教養部紀要 : 愛知学院大学論叢』44(1)、愛知学院大学教養教育研究会、p.57.
- 두피디아(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40990). 검색일: 2019.12.13.)

논문 투고 일자 : 2019. 12. 30.
논문 심사 일자 : 2020. 01. 28.
게재 확정 일자 : 2020. 01. 30.

<要旨>

萩原朔太郎の作品の中から現れた詩的許容の境界
— 『月に吠える』を中心に—

蔡智惠

本稿は萩原朔太郎の作品の中から現れた詩的許容の境界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ここでモラルという概念を定立し、読者かどこまでを文学と芸術で許容できるかの境界について論じてみる。

特に朔太郎の作品の中では、克明に対立する詩的主体の表象と詩的対象の表象が分立していることを発見することができる。まとめてみると、視的主体は主に病気の身体表象として示されており、視的対象は魅惑的な女性の身体が表象されているのである。この二つの様相を綿密に考察ならびに分析し、作品の中でどのように表象されているのか、朔太郎の作品を再照明すべく試みた。

奇怪とも評されるほど正常な人間の姿とは全く別の、美しい女性の身体を過酷かつ残忍に切斷してバラバラになった状態で美学と芸術を描き出した朔太郎の作品を、モラルの境界という視点から、再び近代文学の意義と価値を再評価すべき必要性を、我々は否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

朔太郎の制限のない自由な想像力の中で、彼の対象となる女性の身体と、あるいは直接その女性になろうとする体験を通じて、朔太郎の文学的実験性と倫理性の境界の曖昧をどのように受け止めるか、或いは、読者が一般の社会的物差しで彼の作品を評価す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ある。彼の詩人のモラルについても再度検討が必要だと思われる。

Boundaries of Poetic License in the Works of Sakutarō Hagiwara
— Focusing on “Howling to the Moon” —

Chae, Ji-Hye

This study addresses the boundaries of poetic license in the works of Sakutarō Hagiwara. The works of the concepts of Morrel and discusses the boundaries of how far readers should be allowed to go in literature and art.

In Sakutarō's works, in particular, one can find sharply opposing expressions divided accordingly by the poetic subject and poetic object. In general, poetic subjects are mainly represented by expressions of diseased bodies, while poetic objects represent glamorous women's bodies. Through careful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ese two aspects, I intend to re-examine how these two aspects are represented in Sakutarō's work.

Sakutarō stands on Morrel's border. His painted aesthetics and art present states of harsh, brutal amputations of the bodies of beautiful women, which prompt reevaluation of modern literature.

How will he accommodate Sakutarō's literary experimentation and the ambiguous ethical boundaries of the artist's experience of being the subject of woman's body, or in his free imagination, without limitation? How will the reader evaluate his work on the general social scale? I think we need another review of his poet's Moral.